

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4학년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이향안 글 | 손지희 그림 | 웅진주니어 | 116쪽

독서수업 주안점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표지 탐색하기

이름 :

💡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를 보면,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

3) 책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 바보! 똥똥보 헬멧똥아!”

오동이는 단무지를 곱빼기로 주문했건만 빠뜨린
별난반점 배달부 헬멧똥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인다.

그날 저녁, 현관문에서 발견한 의문의 낙서 X.

집집마다 암호들이 늘어가고 연이어 도난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

오동이는 헬멧똥을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한다.

과연 오동이는 X암호와 헬멧똥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① ‘오동이’가 ‘헬멧똥’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② ‘오동이’가 ‘헬멧똥’을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한 사건은 무엇인가요?

⇒

어휘력 쑥쑥 키우기(1)

이름:

💡 다음은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상냥한 주인아저씨 목소리가 금세 투박한 헬멧똥 목소리로 바뀌었다.
- 유치한 속내를 애써 숨기려는 저 가소로운 표정을 보시라.
 - 그러다 보니 오동이는 급식에 집착하는 버릇이 생겼고, 반에서 가장 빨리 급식을 먹어 치우는 아이가 되었다.
 - 도둑은 오동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담하고 흉악한 놈인 것이다.
 - 꼬마는 도둑을 막기 위해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했다.
- (나) · 밤이 깊었는데도 오동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X, 알리바바, 단무지, 헬멧똥……,
- ① 의 단어들에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얽히고 있었다.
- 짝꿍 담이의 오두방정 오버 액션에도 오동이는 ㉠ 이었다.
 - “㉡ 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요즘 좀 알 것도 같네.”

1) (가)의 밑줄 친 낱말에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답력이 크고 용감하다.
- ② 같잖아서 우스운 데가 있다.
- ③ 말이나 행동 따위가 거칠고 세련되지 못하다.
- ④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다.
- ⑤ 착상이나 생각 따위가 쉽게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발하고 엉뚱하다.

2) (나)의 ㉠~㉡에 들어갈 말의 뜻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 모양이나 성질 따위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 ㉡ 잠자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음.
- ㉢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 시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

어휘력 쑥쑥 키우기(2)

이름 :

💡 다음은 〈별난반점 헬멧뚱과 X사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순간 오동이 머릿속은 엉킨 ()처럼 복잡해졌다.
 · “알리바바 동화에서 X는 도둑들이 하는 ()였잖아.”
 · 그건 ‘날 잡을 수 있으면 어디 한번 잡아 봐!’라는 ()와 마찬가지로인 셈이다.
 · 수시로 드나드는 아이들은 범행의 최대 ()이었을 것이다.
 · 순간 오동이는 사건의 ()이 눈앞에 그려졌다.
- (나) · 별난반점에도 ㉠옥에 티가 있지 뭐가. 바로 배달부인 헬멧뚱이다.
 ·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법!

1) (가)의 밑줄 친 ㉠~㉡의 관용 표현에 해당하는 뜻을 아래에서 골라 각각 번호를 쓰세요.

- ① 전말 :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진행되어 온 경과.
- ② 징표 :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 ③ 실타래 : 실을 쉽게 풀어 쓸 수 있도록 한데 뭉치거나 감아 놓은 것.
- ④ 걸림돌 : 일을 해 나가는 데에 걸리거나 막히는 장애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선전 포고 :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

2) (나)의 ㉠~㉡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이다. 알맞게 짝을 지어 쓰시오.

- ㉠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거나 좋은 것에 있는 사소한 흠을 이르는 말.
- ㉡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스스로 뽐내는 사람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

단무지 없는 날 / X

이름:

💡 다음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안 돼요! 당장 갖다 주세요. 단무지!” / 오동이는 껍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했다. / “어쩌나, 오늘은 그냥 먹는 게…….”

오동이는 참을 수가 없었다. 단무지를 빠트린 건 순전히 헬멧똥의 실수다. 오동이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왜 오동이가 손해를 봐야 하는 걸까? 화가 났다. 억울했다. / 오동이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온 건 그 순간이었다. / “이 바보! 똥똥보 헬멧똥아!” /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인데도 오동이는 화들짝 놀랐다. 놀란 나머지 전화마저 뚝 끊어 버렸다.

(나) 사실 X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조그만 낙서였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일’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낙서는 몇 시간 전, 헬멧똥이 다녀간 뒤에 생겼다는 사실이 첫 번째 증거다. / ‘오늘 우리 집을 다녀간 사람은 헬멧똥뿐이야. 어쩌면 아까 화가 나서 우리 집에 표시해 둔 건지도 몰라. 혼내 주려고 말이야. 조금 전에 몰래 와서 표시해 두고 갔나?’ / 그리고 보니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평소에도 헬멧똥은 오동이를 싫어하는 눈치였다.

1) (가)~(나)에서 ‘오동이’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이다. 알맞은 말을 쓰시오.

<p>(가) : 오동이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를 빠트린 헬멧똥에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를 갖다 달라고 통화했고,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을 했다가 깜짝 놀라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를 뚝 끊었음</p>	<p>(나) : 오동이는 헬멧똥이 다녀간 뒤에 생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를 보고, 헬멧똥이 <input type="text"/>가 나서 오동이를 혼내 주려고 몰래 와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해 두고 갔다고 생각했음</p>
---	---

2) (가)~(나)에서 ‘오동이’가 ‘헬멧똥’에게 잘못된 말과 생각은 무엇인지 쓰시오.

⇒

유치찬란 치사똥 / \의 등장

이름 :

💡 다음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302호와 303호는 단무지 갖다 준다고?”

○는 배달할 때 단무지 주는 집, X는 단무지를 안 주는 집, 그러니까 ○와 X는 헬멧똥의 단무지 배달 암호가 아닐까? 301호도 뭔가 미운 꼬투리를 잡힌 거겠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오동이는 그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았다.

“이런 유치한 복수를 하다니! 치사한 헬멧똥!” / 헬멧똥의 정체는 ‘유치찬란 치사똥’이었던 것이다. / 추리에는 증거가 필요한 법이다. 오동이는 자신의 추리를 증명할 방법도 생각해 냈다. / “좋아! 그렇게 해 보면 돼!”

이제 곧 헬멧똥이 얼마나 ‘유치찬란 치사똥’인지 밝혀질 것이다.

(나) 그때였다. 오동이는 흠칫 놀라고 말았다. 복도에서 마주 보이는 놀이터, 그곳 벤치에 헬멧똥이 앉아 있지 뭔가. / 헬멧똥의 행동은 수상쩍기만 했다. 빌라 건물을 올려다보며 가웃 가웃, 그러다가 작은 노트에 뭔가를 급적급적……. 수상하다! 정말 수상하다! 왜 빌라 건물을 올려다보는 걸까? 대체 뭘 기록하고 있는 걸까?

순간 오동이 머릿속에 전깃불이 탁 켜졌다. / “집들을 감시하고 있어!”

1) 윗글에서 ‘오동이는’ ‘헬멧똥’을 ‘유치찬란 치사똥’이라고 했고, ‘헬멧똥’이 집들을 감시한다며 수상하게 여겼다. 이러한 ‘오동이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

2) (가)에서 ‘오동이는’가 추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쓰시오.

⇒

풀어내다 / X\ \ \ \ 3 20

이름 :

💡 다음 〈별난반점 헬멧뚱과 X사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풀렸다! 빗금의 암호가 풀렸다! 빗금 개수는 각 집의 가족 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낙서들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란 게 밝혀진 것이다.

오동이는 숨이 턱 막혔다. 대체 왜 헬멧뚱은 이런 암호를 적어 둔 걸까? 다른 집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다. 더 친해지려거나 도둑질을 하려거나. 그럼 정말 ‘101호 도둑 사건’과 헬멧뚱이 관련이 있는 걸까?

(나) 곧 오동이네 집에도 숫자 낙서가 등장할 것이다. 오동이네 집에 숫자 낙서가 나타나지 않은 건 범인이, 아니 헬멧뚱이 아직 오동이네 집이 텅 비는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 그것도 시간문제다. 놀이터에서 감시하고 있으니 오동이가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금요일 6시에 학원에 간다는 걸 알아낼 테고, 곧 가장 적합한 범행 날짜도 알아낼 것이다. / 순간 오동이의 두 팔에는 소름이 짝 돋았다. 범행 날짜와 시간을 집 대문에 적어 놓는 도둑이라니! 그건 ‘날 잡을 수 있으면 어디 한번 잡아 봐!’라는 선전 포고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셈이다. 도둑은 오동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담하고 흉악한 놈인 것이다.

1) (가)에서 빗금의 암호는 무엇을 뜻하고, 암호를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

2) (나)에 나타난 ‘오동이’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오동이네 집에 □□ □□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 아직 오동이네 집이 □□□□□□을 정확히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음



□□□□이 오동이가 월요일과 금요일 6시에 □□□□□□□□□□을 알아낼 테고, 곧 가장 적합한 □□□□□□도 알아낼 것이라고 생각했음

사라진 낙서 / X\ \ 6 22

이름 :

💡 다음 〈별난반점 헬멧뚱과 X사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라졌다! 낙서가 사라져 버렸지 뭐냐. X와 빗금은 물론, 숫자도 사라졌다. 감쪽같이 없어졌다. / 오동이는 제 눈을 의심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역시 없었다. 오동이는 재빨리 아래층으로 내달렸다. 101호에는 낙서가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1호 문 앞에서 오동이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거기에도 낙서는 없었다. 낙서들이 다섯 시간 만에 사라진 것이다. / “오동아! 강오동!” / 엄마의 짜증 섞인 목소리만 웅웅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 “쓸데없는 탐정놀이는 그만해. 엄마 배고프단 말이야. 빨리 올라와!” / 어떻게 알아낸 암호였는데……, 분한 마음에 온몸이 벌벌 떨렸다. 어렵게 알아낸 결정적인 단서가 사라진 것이다.

(나) “낙서는 낙서로 맞붙어 주겠어!” / 오동이는 3층에 생긴 낙서들을 화이트로 지우기 시작했다. 단 하나의 낙서, ○만 남기고 말이다. 그리고 ○가 없던 301호와 오동이네 집 문에도 까만 펜으로 ○를 그려 넣었다. 알리바바가 40인의 도적에 맞서 했던 방법처럼 말이다. 알리바바도 자신의 집에 그려진 X낙서를 온 동네 집 대문에 그려서 도둑들을 헛갈리게 하지 않았던가. 달라진 거라면 알리바바는 낙서에 X를 이용한 반면, 오동이는 ○ 낙서를 선택한 것 뿐이었다.

1) (가)에서 ‘오동이’가 분한 마음에 온몸이 벌벌 떨렸던 이유를 쓰시오.

⇒

2) (나)에 나타난 ‘오동이’의 행동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 □□’이란 책에서 알리바바가 40인의 도적에 맞서 자신의 집에 그려진 □□□□를 온 동네 집 □□□□에 그려서 □□□□을 헛갈리게 했음

=

오동이는 3층에 생긴 □□□□을 ○만 남기고 □□□□로 지웠고, ○가 없던 □□□□□□와 □□□□□□ 문에도 □□□□□□으로 ○를 그려 넣었음

운명의 시간 / 아삭! 짹! 단무지 ~

이름 :

💡 다음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단무지다! 단무지! 아삭하고 달콤한 별난반점 단무지!

오동이 눈앞이 노랗게 물들며 코끝에 새콤 짹조름한 향기가 날아들었다.

새콤한 향기 사이로 반가운 소리도 함께 날아 들어왔다. / “짹 짹 마라!” / 계단을 타고 들려오는 경찰 아저씨들의 고향 소리였다. / 그제야 오동이는 깨달았다. 조금 전에 도둑이 말한 ‘그 녀석’은 오동이 아니라 헬멧똥이었던 걸! 오동이가 헬멧똥과 자신의 싸움이라고 믿었던 X사건이 사실은 배달을 하다가 낙서를 발견한 헬멧똥과 그걸 눈치챈 도둑 사이의 치열한 머리싸움이었던 걸 말이다.

(나) 이제 오동이는 문을 열고 헬멧똥을 맞는다. 택배가 왔을 때도 다른 배달 음식이 와도 그렇게 한다. / 오동이는 이웃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 사건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오동이네로 찾아와서 격려도 해 주고 인사도 나왔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요즘 좀 알 것도 같네.” / 엄마는 옆집 아줌마들을 진짜 사촌이라도 맞듯 반가워했다. / 자주 얼굴을 봐서일까, 오동이도 헬멧똥이 이전 사촌처럼 친근했다. 팔자 모양 판다 눈도 더없이 정겨웠다.

1) (가)에는 ‘오동이’가 ‘헬멧똥’과 자신의 싸움이라고 믿었던 X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X사건의 진실을 요약하여 쓰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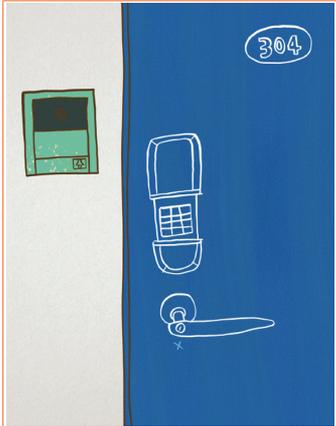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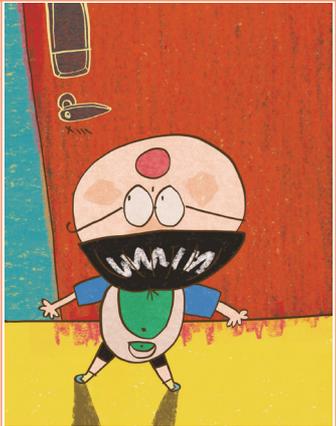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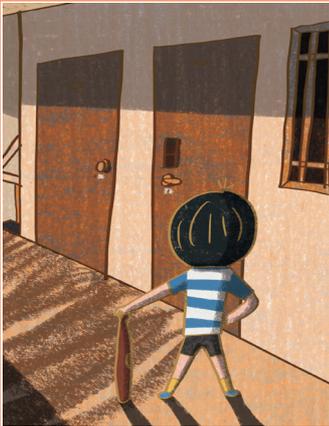
2) (나)에서 X사건 이후에 ‘오동이’의 변화된 모습을 모두 쓰시오.

⇒

독해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이름 :

1) 다음은 〈별난반점 헬멧똥과 X사건〉에 나온 그림이다. ①~②에서 ‘오동이’가 발견한 암호의 의미를 쓰고, ③에서 ‘오동이’가 한 행동을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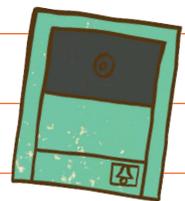
		
①	②	③

2) 이 이야기에서 ‘오동이’가 해석한 낙서의 암호 법칙에 따라 우리 집을 표시해 보고, 그 뜻을 써 보시오.

• 암호 :

• 뜻 :

304



정답과 해설

3쪽	<p>1) (예시답안) 중국집 별난반점의 헬멧뚱이라는 배달부가 겪은 X사건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다.</p> <p>2) 헬멧과 고글을 쓴 중국집 배달부가 오른손에는 철가방을, 왼손에는 연필을 쥐고 뒤돌아보고 있다. 그를 안경 쓴 남자아이가 화난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다.</p> <p>3) ① 오동이 단무지를 곱빼기로 주문했건만 헬멧뚱이 빠뜨려서 ② 현관문에서 발견한 의문의 낙서이자 암호인 X가 집집마다 늘어나고, 연이어 일어난 도난 사건</p>
4쪽	<p>1) ③, ②, ④, ①, ⑤ 2) ㉠ 가지각색, ㉡ 목록부담, ㉢ 이웃사촌</p>
5쪽	<p>1) ③, ②, ⑤, ④, ① 2) ㉠ : ㉡, ㉢ : ㉣</p>
6쪽	<p>1) (가) 단무지, 단무지, 거친 말, 전화 / (나) X낙서, 화, 우리 집, 표시</p> <p>2) 오동이는 뒷사람인 헬멧뚱에게 거친 말을 했고, 평소에도 헬멧뚱은 자신을 싫어하는 눈치였다고 생각했다.</p>
7쪽	<p>1) (예시답안) 오동이는 ○X 표시가 헬멧뚱이 단무지를 주는 집과 안 주는 집이라고 해석해서 유치한 복수라고 생각했다. 또한 벤치에 앉아 있는 헬멧뚱이 집들을 감시하고 있다며 의심하고 있다. 자신만의 생각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의심하면 안 된다.</p> <p>2) 추리에는 증거가 필요한 법이고, 추리를 증명할 방법도 필요하다.</p>
8쪽	<p>1) 각 집의 가족 수, 더 친해지려거나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p> <p>2) 숫자 낙서, 헬멧뚱, 텅 비는 시간 / 헬멧뚱, 학원에 간다는 것, 범행 날짜</p>
9쪽	<p>1) 낙서들이 다섯 시간 만에 사라져 어렵게 알아낸 결정적인 단서가 사라졌기 때문에</p> <p>2)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X낙서, 대문, 도둑들 / 낙서들, 화이트, 301호, 오동이네 집, 까만 펜</p>
10쪽	<p>1) (예시답안) X사건은 배달을 하다가 낙서를 발견한 헬멧뚱과 그것을 눈치챈 도둑 사이의 치열한 머리싸움이었다. 이러한 사정도 모르고 오동이는 헬멧뚱을 도둑이라고 의심하며 직접 잡을 생각까지 한 것이다.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p> <p>2) 배달 음식이 오면 문을 열고 배달원을 맞이했고, 이웃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헬멧뚱을 정겹고 친근하게 여겼음</p>
11쪽	<p>1) ① X : 낮에 사람이 없음 ② X \ \ \ : 낮에 사람이 없음, 가족은 셋 ③ 오동이는 낙서에 ○만 남기고 화이트로 지웠고, 없는 곳에 ○를 그려 넣었음</p> <p>2) 생략</p>

웅진 **주니어**

값 9,000원



9 788901 212821
ISBN 978-89-01-21282-1
ISBN 978-89-01-05987-7 (세트)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인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알도록 주의하세요.